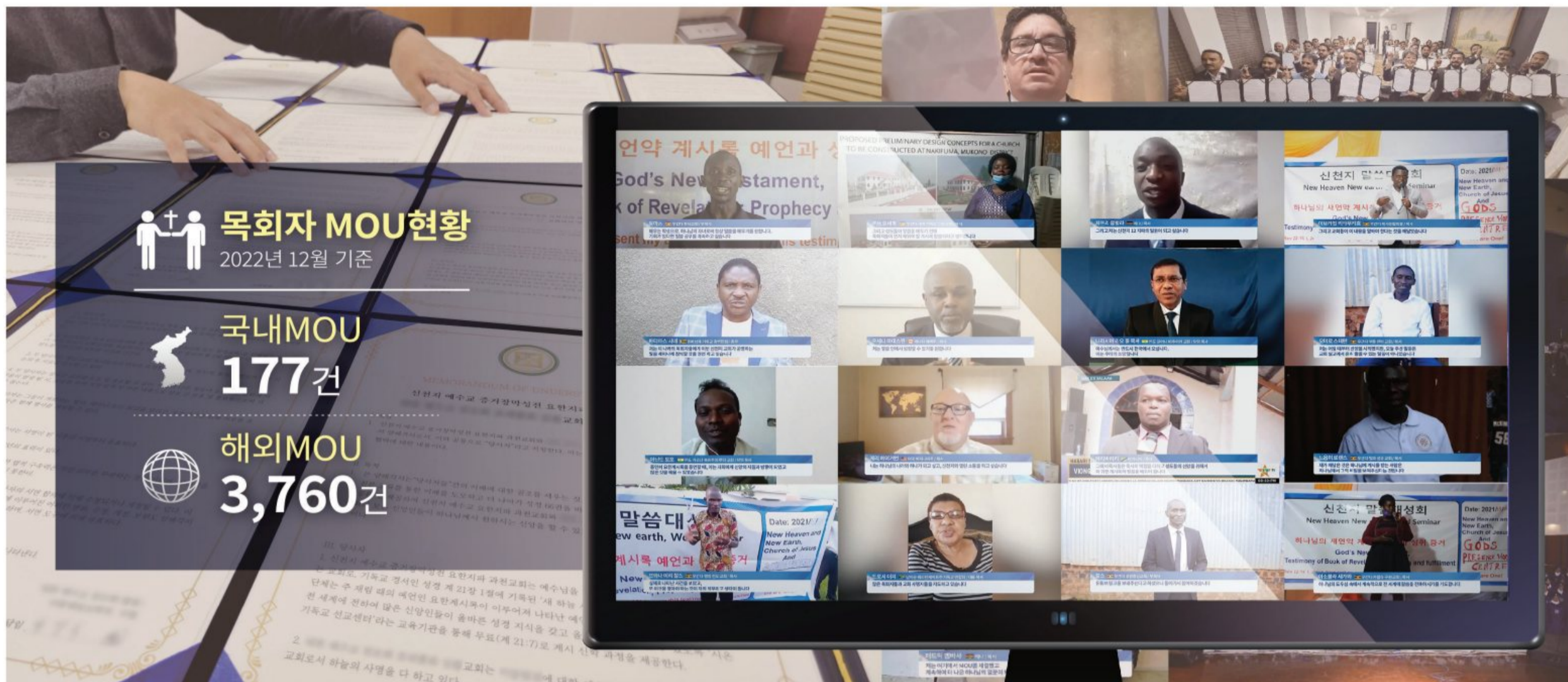


“교회 간판도 바꾼다” 해외서 잇단 협력 요청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성경 교육과 '10만 수료식' 영상 등이 해외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해외 목회자들이 연이어 현지 말씀 세미나 개최를 요청하고 있으며, 해외 교회들과의 업무 협약(MOU) 체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등에서는 수십 개 교회가 연합한 지역 교단 대표가 신천지예수교회로 교단 편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목회자들 요청으로 현지 말씀 세미나 개최

신천지예수교회는 2021년 말부터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며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성경 교육과정 전반을 공개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는 1월 말 현재까지 노출 4억뷰, 조회수 35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이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의 성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해외 목회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필리핀 교단의 초청으로 올 초 필리핀 현지에서 말씀 세미나에 나섰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4일 오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1천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현장에 참석한 500명을 대상으로 예정됐으나 현지 교단 측의 요청으로 온라인을 통해 709명의 목회자가 추가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요한계시록 전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말씀대성회에서 이 총회장은 “계시록이라는 책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한 시대가 창조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며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가고 저주 받는다고 계시록 22장 18-19절에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관계자인 해롤드 레시오(Harold Rescio)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강사는 “세미나 이후에도 후속 교육을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잇단 대규모 MOU... 교단 편입 요청도

또한 국내외 목회자들과의 말씀 교류 MOU도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말 기준 신천지예수교회가 국내외 목회자들과 맺은 MOU는 약 4천 건이다. 이 중 국내는 177건, 해외 3천760건으로 해외 목회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신천지예수교회는 MOU를 체결한 신학교·교회 등에 선교센터 신학 교재와 신학 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인적 자원 등을 공유하며 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회·교단을 초월해 교인들에게 수준 높은 성경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교류는 2021년 8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목회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신천지예수교회의 '10만 수료식' 영상이 주목을 받으며 MOU 체결을 요청하는 교회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는 수백개 교회들과 동시에 MOU를 맺는 등 대규모 협약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교인 수 1만 6천650여 명 규모의 280개 교회와의 MOU 체결이 진행됐다. 또한 250여 개 교회(성도 수 5천여 명)가 속한 지역 오순절 교단 대표가 MOU 체결 이후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후속 교육과 함께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집회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아가 교회 간판을 바꾸거나 교단 편입을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16개 교회가 교회 간판을 '신천지예수교회'로 변경했고 추가적으로 14개 교회가 교회 간판을 바꾸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교회는 오는 2월 교회 현판을 '신천지예수교회'로 바꾸는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마다가스카르의 한 지역 대표가 교단 편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회 해외선교부 관계자는 “마다가스카르 지역 교단 대표는 본인이 속한 교단은 말씀이 없다고 판단해 지부에 소속된 33개 지교회들(성도 5천여 명)과 함께 뜻을 모아 최근 교단을 탈퇴했다”며 “새롭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교단을 찾다가 10만 수료식 영상을 보고 직접 우리를 찾아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교회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신천지 교회’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통한 신천지예수교회 '계시 말씀' 국내 '말씀 교류' 사역 1년새 4천건 '10만 수료식' 영상 노출 2억뷰 달성

신천지예수교회 유튜브, 2022년 교계채널 조회수 '최고'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누적 조회수 약 6천200만뷰를 달성하며 교계채널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10만 수료식 영상은 2억뷰 이상 노출, 총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 공개 강의로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에 대해 궁금해했으나 대면 행사 참여나 강의 수강 등은 부담스러워했던 교인들이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종교 생활 또한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면서 유튜브로 세미나를 시청하며 직접 판단하고 선택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